

“장흥~광주 직선도로 빨리 개설해 달라”

장흥군의회, 김영록 지사 만나 요구 지방도 839호선 확장 20년째 부진 지역민 불편·산단 분양 부진 유발

“장흥만 없는 직선도로 빨리 개설해 달라.” 장흥군의회가 국토건설부와 전남도를 상대로 광주~장흥간 직선도로를 개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장흥군의회는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화순이양에서 장흥 유치로 연결되는 지방도 839호선 확장(4차선) 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20여년 가까이 지지부진 끌여오고 있다”며 “조기 완공과 함께 장평봉림에서 장동배산(국도2호선)으로 이어지는 9.5km 구간 확장(4차선)을 통해 일시적인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망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장흥지역 주민들의 도로망 취약

으로 인한 교통불편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방도로 연간 예산 가용이 1000억원인 점을 감안 장흥 구간만 집중 투자할 수 없는 예산한계가 있다며 국가(국토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장흥구간만이 직선화도로가 없는 상태로 장흥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장흥을 제외한 전 시·군이 광주권과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장흥만 없어 장흥에서 광주 왕래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장흥에서 광주권을 잇는 도로 가운데 광주 동구에서 화순(능주 이양)을 경유 보성으로 이어지는 국도29호선(4차선)이다. 광주~장흥간을 이용하는 가장 편리한 교통망은 화순 이양에서 갈라지는 지방도839호선과 820호선을 거쳐 나주에서 장흥 방면으로 만나는 장흥 유치 능용3거리 국도23호선(2차선)으로 장흥읍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진행 중인 지방도 839호선 확

장공사는 2023년 말에, 지방도 820호선은 현재 설계단계로 2027년 이후 준공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전남 지역 대부분 시·군이 서울행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장흥은 인접 영암과 화순을 경유하는 직행고속버스(일명 직행버스)로 서울을 오갈 수밖에 없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지난 2012년에 총 88만평 규모로 조성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역시 조성된지 10년 넘었는데도 수도권 등지 투자자들이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꺼리는 바람에 분양률이 60%에 그치는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관광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완용재 장흥군의회 의장은 “광주~장흥간 직선도로는 중남부권 중심부를 관통하는 핵심도로 뿐 아니라 전남균형발전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며 “정부와 전남도가 특정지역 도로망 구축을 떠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연말까지 ‘긴급출동 만물 수리센터’ 운영

취약가구 난방·수도동파 등 수리

강진군이 연말까지 ‘긴급출동 만물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는 저소득 가구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난방시설 수리, 단열재 보강, 수도 동파 방지, 전등 교체, 문 수리 등 소규모 수리 등을 실시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사진> 보일러 작동이 안 되거나 전등 교체가 필요한 가정, 방문 사이로 바람이 많이 불어 보강이 필요한 가정 등은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긴급출동 만물 수리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수리를 진행한다. 강진군 희망복지팀장은 “화장실 전등이 고장 나고 고칠 수 없어 컴컴하게 지내시는 어르신, 손잡이가 고장이 나고 고칠 수 없어 추운 겨울에도 문을 닫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기동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소규모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르신은 읍·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3년에 긴급출동 만물 수리센터를 강진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전문성, 신속성을 갖춘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2~3명이 1팀으로 구성해 수리 차량에 기본 공구를 비치하고 수리



가능한 가구는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황룡강 야경 조명분수 설치로 더 화려해졌다

교통불편도 해소 일석이조 효과

장성 황룡강 야경이 문화대교 회전교차로 조명분수대 설치로 더욱 화려해졌다. <사진> 장성군은 회전교차로 중심부를 돌운 데 이어 조명과 분수를 설치해 가시성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살렸다고 밝혔다. 문화대교 회전교차로가 있는 곳은 장성을 시내 수영장 앞이다. 공설운동장 열로우시티 스타디움과 장성문화예술회관, 흥길동체육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등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상시 교통량이 많다. 하지만 노면에 차선으로만 표시되어 있던 기존 회전교차로는 다수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장성군은 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 분수대를 설치했다. 회전교차로 조명 분수가 더해지면서 장성 황룡강 일원은 ‘야경 명소’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장성군은 앞서 플라워터널 인근에 각종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간 중 큰 화제를



모든 바 있다. 석송대 부근 황룡강 폭포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명으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분수 가동이 중단되는 겨울철

에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성 확보, 도시 미관 개선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양파 재배 전과정 기계화 박차

2025년까지 113ha→150ha 확대

함평군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양파 재배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계를 활용한 양파 정식 작업을 본격 실시한다 밝혔다. 군은 양파 정식기인 10월 말부터 11월 초는 벼 수확 시기와 겹쳐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오름에 따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파 정식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계화 작업을 추진해 나

갈 방침이다. 지역 농업 및 양파 농가와 함께 기계화 작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5년까지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현재 113ha인 기계화 면적을 150ha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재 농가에 양파 기계화 비닐, 기계화 전용 상토, 완효성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양파 전과정 기계화를 완벽하게 이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근로자 주거...복합문화센터도

화순군이 동면 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동면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99억 원(국비 39억2000만 원, 주택기금 22억8000만 원, 도비 3억9000만 원, 군비 31억1000만 원)을 투입,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완공 후 30여 년이 지난 노후 산단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동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와 심터 제공으로 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 근로의욕 고취와 청년 인



동명 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구 유입 강화, 농공단지 활력 효과가 기대된다”며 “마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관광취약계층 무료 여행 참가자 모집

저소득층·저소득 장애인 536명

나주시가 지역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 참가자 및 단체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평소 여행을 다니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의 관광기본권 보장과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5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지원해준다. 전체 모집 인원은 저소득층 472명, 장애인 64명 등 총 536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민으로,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장애인의 경우 지체(휠체어 이동자),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해당된다. 참여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 모집 연장 공고)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해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본인·단체대표자 직접 방문이 원칙이지만 위임장 구비 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전남 행복여행 상품은 장애인 분야와 저소득층 분야로 나뉘며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